

【연구논문】

윌리엄 스투크의 국제전 접근법과 한국전쟁 연구

옥창준

(서울대)

1. 들어가며

윌리엄 휘트니 스투크(William Whitney Stueck Jr., 1945~, 이하 ‘스투크’)은 쾨츠대학에서 트루먼 행정부의 한국전쟁 개입과 미국 국내정치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약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미관계에 천착해왔다.¹⁾ 스투크는 1977년 브라운대학교에서 찰스 뉴(Charles E. Neu)의 지도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퍼듀대·시라큐스대·남플로리다대학교를 거쳐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지아대학교 역사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명한 『케임브리지 냉전사』 시리즈의 한국전쟁 항목을 집필한 이력은 그가 한국전쟁의 세계적 권위자임을 뒷받침한다.²⁾

-
- 1) 스투크의 석사학위 논문 제목은 *Domestic Politics, Far Eastern Strategy, and the Early Months of the Korean War*(1971)이며, 앨런 하퍼(Alan D. Harper)가 지도 교수를 맡았다.
 - 2) 『케임브리지 냉전사』에 수록된 스투크의 글은 그의 한국전쟁관을 압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다. William Stueck(이하 ‘WS’), “The Korean War,”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1: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P, 2012), 266-87.

본 논문은 스탁의 연구가 한국전쟁 연구사에서 갖는 위상을 재평가하려 한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스탁은 이른바 ‘국제전문’의 태두로, ‘사회혁명-내전론’을 이끄는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안티테제로서만 소비된 측면이 크다.³⁾ 그러나 이러한 국내 학계의 관점은 오히려 그의 연구를 커밍스의 대립쌍으로 박제해버려 그 이상의 발전적 논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스탁의 연구를 깊이 있게 분석하려면 한국전쟁에 대한 그의 접근법과 태도를 반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스탁은 한국전쟁을 연구하며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했으나, 당시 국내의 관심사는 커밍스와의 대결 구도에 집중되어, 많은 연구 질문들이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⁴⁾ 따라서 한국전쟁 연구의 현재적 함의를 풍부하게 유지하려면, 각각의 연구가 갖는 시대사적 의미를 당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각자의 독자적 위상을 섬세하게 찾아주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연구사에서 나타나는 ‘내전’(內戰) 개념을 요소별로 섬세하게 재분류한 이삼성의 연구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이삼성은 한국전쟁 내전론의 핵심 연구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한다. ① 한국인들 내부의 좌우 분열과 대립이 전쟁의 근원적인 토대인가? ② 북한 지도부의 전쟁의지는 독립변수인가? ③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 좌익은 독자적인 민중적 기반을 지녔는가? ④ 한반도에서 미국(미군정)의 역할은 반혁명적이었는가? 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 이전부터 적극적인 전쟁의지를 갖고 있었는가? ⑥ 북한의 전쟁 결정과 실행은 소련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 결단인가?⁵⁾ ①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내전론의 본령이

3) 커밍스와의 대비 속에서 스탁의 연구를 위치시키는 대표적인 글로는 김남균, 「미국 역사가들과 한국전쟁: 해석의 변증법」, 『미국사연구』 12 (2000): 137-59.

4) 물론 본 연구가 커밍스가 국내 학계에 미친 심대한 지적 충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서 지성사적 탐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커밍스가 미친 당대의 충격에 대해서는 박명림, 『역사·지식·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파주: 나남, 2011), 제4장 참고.

5) 이삼성, 「한국전쟁과 내전: 세 가지 내전 개념의 구분」, 『한국정치학회보』 47-5

라면, ⑥에 대한 부정적인 답은 국제전론의 핵심 가설이다.

그러나 스탁의 연구가 꼭 ⑥의 논의에만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협소하다. 커밍스가 ①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전쟁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듯, 스탁도 ⑥에서 출발했는지언정, 전쟁의 기원과 발발, 전개 및 종결과정 등 한국전쟁 전(全) 과정을 망라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이다. 커밍스와 스탁의 대립구도와 승패에 집착해 스탁이 커밍스의 내전론을 수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그의 연구에 대한 올바른 독법이 아니다. 애초부터 두 사람의 연구결과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커밍스가 식민시기부터 축적되어온 한국 사회의 모순과 미국의 대한정책의 갈등 관계에 주목한 반면, 스탁은 외교정책 연구자답게 미국의 대한정책 그 자체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뿐이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스탁의 연구를 시기별로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 스탁의 입장이 한국전쟁의 여러 쟁점들에서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전쟁 연구의 ‘진정으로 유일한 국제사가’라는 상찬에 걸맞게 스탁은 양국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사 연구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아협착증’(tunnel vision)을 경계했으며, 한국전쟁이라는 핵심 사례를 통해 미국의 냉전 동아시아 정책을 폭넓게 분석하고자 했다.⁶⁾ 이 과정에서 스탁이 미국의 정책을 항상 옹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엄밀한 학문적 입장에서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했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이와 같은 스탁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주목했던 스탁의 국제전 접근법의 특징을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연구성과들과 연관지어 살핀다. 이후 본 연구는 스탁의 국제전 접근법이 한국전쟁 연구에 가져온 기여와 의의를 그 자체로서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다.⁷⁾

(2013), 309-10.

6) 스탁의 한국전쟁 연구가 외교사 연구의 ‘시아협착증’을 극복했다는 평으로는 Randall B. Woods, “The Substitute War,” *Diplomatic History* 21-4 (1997), 637.

7) 한국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스탁의 글은 지면의 한계 상 본 연구의 분석

2. 윌리엄 스톡의 국제전 접근법

국제전 접근법은 스톡을 다른 연구자들과 구분 짓는 가장 분명한 차별화 요소다. 이러한 차별성은 국내 학계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연구자들과 비교하면 좀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국내 학계에서 국제전 시각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이완범이다. 그는 한국전쟁의 발발원인, 특히 한국전쟁을 일으킨 진범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국 사료에 대한 교차 검토를 적극 활용한다. 최근 연구에서 이완범은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내인론과 외인론을 동원해 한국전쟁의 기원을 1950년 이전의 분단 상황으로 소급해 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완범의 결론은 한반도 분단 국면에서는 외인(스탈린의 의지)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었으나, 전쟁 발발 국면에서는 외인과 내인(김일성의 의지) 중 어느 쪽이 더 주도적인지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이 자신의 개입을 은폐하면서 한국전쟁은 초기에 ‘내전의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양상을 보였다. 국제연합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에는 ‘국제전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전쟁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⁸⁾

이완범의 국제전 접근법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다. 그의 국제전은 ‘외인’에 대한 강조와 연동되어 있으며, 한국전쟁의 먼 원인이 되는 한반도 분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또 그는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이 복합된 한국전쟁에서 국제전의 요소가 강해지는 것은 국제연합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라고 본다. 이완범의 논의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스탈린의 은폐로 전쟁 초기 내전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전쟁이 국제전이라는 본질을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와 같은 내재적인 불충분성 때문에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전쟁의 성격규정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톡의 연구 목록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보라.

8) 이완범, 「6·25전쟁의 성격과 개전 책임문제」, 『북한학보』 34-1 (2009): 41-76.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로 전쟁의 직접적인 책임 문제를 따지는데 집중하면서, 전쟁의 기원과 관련한 김일성·스탈린의 전쟁 책임론 이외의 선택지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경향에 대해 최근 한 연구자는 한국전쟁 연구를 포함한 냉전 연구가 냉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중심에 초점을 둔 채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전쟁의 모든 책임을 적에게 귀속시키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의 발현이라 예리하게 비판한 바 있다.⁹⁾ 이 지적을 유념하면서, 좀 더 넓은 문제 지평 속에서 앞서 제기한 여러 쟁점들을 각각 세밀하게 규명해보도록 하자. 한국전쟁을 19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더 긴 시간 지평에서 다룬다면, 미국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한국전쟁이 국제전으로 변모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스톡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탐색하고 있는 학자다. 그는 학문적 여정을 시작할 당시부터 한국전쟁의 명시적인 발발 주체는 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적에 대한 처벌과 단죄에만 집착하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경도된 학자는 아니었다. 실제로 스톡은 매우 일찍부터 전통주의·수정주의가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경계했다. 이러한 한계는 ‘시야협착증’(tunnel vision)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는 터널의 출구만을 의식할 뿐,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스톡의 눈앞의 상황만 집중하느라 현실의 전체상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외교사 연구에도 흔히 나타난다고 보았고, 이를 항상 유의했다.¹⁰⁾

넓은 지평에서 대상의 전체상을 확보하는 그의 시야는 연구대상과 방

9)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서울: 후마니타스, 2015), 25.
 10) 반면 브루스 커밍스는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를 보는 데 있어 ‘시차적 관점’(parallax vision)을 중시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Bruce Cumings,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Durham: Duke UP, 1999).

법에서도 잘 나타난다. 먼저, 스톡은 여러 국가들의 사료를 섭렵하고 이를 연구 결과에 녹여내 각국의 이해관계가 한국전쟁의 시작단계는 물론, 전쟁의 전(全)단계에 있어 서로 얼마나 달랐는지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스톡은 일찍부터 한국전쟁기 영-미 관계에 주목했는데, 그에 따르면 영국은 한국전쟁 참전과 중국 승인 문제 등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가, 전쟁 초기 미국의 결정들을 추인했고, 다시 1950년 후반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 이후에는 미국과 의견이 갈라서는 복잡한 정책노선을 보여준다.¹¹⁾ 기존 연구들이 한국전쟁을 영-미의 특수관계가 회복되는 계기로만 파악해왔다면, 스톡은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3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경합하고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변화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 개별 국가의 냉전 전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스톡에게 중요한 문제 영역이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그는 자유 진영 내 여러 국가들(티키나 호주) 등이 왜 한국전쟁에 파병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개별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한국전쟁을 당대에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세밀하게 규명된다.¹²⁾

또 한국전쟁의 의미를 국제전으로 규정한 스톡이 정작 자신의 사료 분석에서 영문 자료만 다루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실제로 스톡이 분석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했지만, 대상의 자료적 근거는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생산된 영문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의 접

11) WS, "The Limits of Influence: British Policy and American Expansion of the War in Korea," *Pacific Historical Review* 55-1 (1986): 65-95.

12) WS, "The Korean War as International History," *Diplomatic History* 10-4 (1986), 298.

13) 스톡의 논의에서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의 언어적 한계로 인하여,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톡은 한국 사료를 포함하여 다국 사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다른 학자들과의 협업을 증시한다. WS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U of Kentucky P, 2004).

근법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개별 국가들의 외교사의 총합을 넘어선다. 스톡 연구의 강점은 관점의 포괄성이지만 분석 대상의 언어적 다양성은 아니었다. 스톡은 국가들의 집합체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영연방·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국제연합까지 포괄하여 한국전쟁에 접근하고 있다. 스톡은 그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캐나다·인도·호주·국제연합 자료들을 최대한 검토하면서 단순한 냉전 논리나 패권의 관철로만 설명되지 않는 한국전쟁의 여러 쟁점들을 새로이 발굴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성과는 한국전쟁 당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영향력을 일정하게 복원한 것이다. 이들은 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분명하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쟁의 냉전적 파급효과는 영연방 국가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들은 미국이 전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유럽에 대한 안전보장에 집중해주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영연방 국가들은 국제연합을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한국전쟁 평화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국제연합 총회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물론이다. 한국전쟁에서의 핵무기 사용이나 전쟁의 무제한 확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수가 되었다.¹⁴⁾

이와 같은 스톡의 학술 작업의 계보는 제1차 세계대전 연구로부터 발원한 ‘국제사 접근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 연구 방법론의 일종인 국제사 접근법은 전쟁의 국제적 측면 및 영향과 유산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일례로,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했지만, 국제사 연구자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오스트리아 민족주의의 대립이라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질서의 판도(동맹국-연합국의 대결)에도 주목한다. 제1차 세계

14) 스톡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진정으로 유일한 국제사가’라는 학문적 상찬을 받기도 했다. Robert Barnes,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London: I. B. Tauris, 2014), 7.

대전과 관련되는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왜 1914년의 발칸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는지의 문제다. 이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당시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지역분쟁이 존재했는데도 왜 하필 1914년의 ‘사라예보의 총성’이 세계대전의 기폭제가 되었는지를 논의한다. 아직까지 제1차 세계대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합의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발칸의 지역적 대립을 추궁하거나, 유럽 동맹 질서의 구조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굵직한 사조(思潮)들이 있을 뿐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과 관련된 연구 질문들은 분단에서 전쟁으로,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나아간 한국전쟁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스톡의 연구는 왜 트루먼 독트린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그리스·터키나 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럽이 아니라 하필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스톡이 강조하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반도가 1945년의 맥락에서 이미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분할 점령되었다는 사실이다.¹⁵⁾ 스톡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한반도의 특성에 주목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이 한국전쟁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그는 반사실적 접근방법을 통해 만약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군했다면 과연 한국인들 간의 내전이 발발했는지 되묻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의 현실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그랬다면, 10년 안에 한반도는 통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스톡은 언급하기도 했다.¹⁶⁾ 한국전쟁을 한반도 분단에서부터 찾는 태

15) WS, “In Search of Essences: Labelling the Korean War,” 『영미연구』 2 (1998), 147. 스톡은 『한국전쟁의 국제사』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전쟁의 원인은 1945년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점령이 양국 간의 통일조건에 대한 차이로 영구화 된 데 있다는 것이다.” 스톡,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서울: 푸른역사, 2001), 13.

도는 미국과 소련은 모두 한국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스톡의 인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

다음으로 스톡은 한반도 내부의 로컬적 차원보다 국제적 수준의 변화를 중시했다. 일례로, 스톡은 한국전쟁에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역할을 사건의 독립변수로 보지 않았다. 이승만이 미국 내에서 로비스트들과 열심히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한정책은 이승만 개인의 노력으로 좌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스톡은 트루먼 독트린 제창 이후 미국이 냉전 시대에 걸맞게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재정위하면서, 여기에 연동된 것이 미국의 대한정책임을 강조했다.¹⁸⁾ 김일성의 역할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평가절하 된다. 이 점에서 스톡은 탈냉전기 사회주의 진영의 자료들의 공개 이후 스탈린-김일성-마오쩌둥의 공모과정을 밝히는 데 주목하는 학계의 흐름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톡은 전쟁의 기원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개과정과 결과에도 초점을 두기를 원했다. 물론 스톡은 한국전쟁 발발 전부터 남한 내부에서, 또 남한과 북한 간의 이미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1948년 이후에 지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¹⁹⁾ 그러나 그는 이미 외국군(국제연합군,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결국 한반도는 어느 쪽으로든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내부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군의 개입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쟁 자체가 결정되고, 확대된 것은 소련의 지원, 국제연합군의 개입과 이에 따른 중공군의 개입과 같은 한반도 외부 요인이

16) Lee, Chae-jin and Donald Oberdorfer, Byoung-chul Koh and William Stueck, "Imagining a Different Korea: What If?" Philip West and Suh Ji-moon (eds.),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New York: M.E. Sharpe, 2001), 210.

17) 이 점에서 스톡은 베트남전쟁이나 스페인 내전과 한국전쟁을 유비하는 커밍스의 시각을 비판하기도 했다. WS, "In Search of Essences," 149-51. 스톡이 보기에 이 전쟁들은 기본적으로 내전이었으며, 외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18) 스톡, 서은경 옮김, 『한국전쟁과 미국의외교정책』(서울: 나남, 2005), 제2장 참고.

19) WS, "The Korean War," 273.

작동했기 때문이었다.²⁰⁾

스톡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국제연합 내에서 한국전쟁 문제가 다루어지고, 중국에서는 반미 운동이 개시되고, 미국 내에서의 군비의 팽창과 서유럽 방위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것을 내전론에 대한 유력한 반대 증거로 제시한다.²¹⁾ 한국전쟁은 북한이나 미국 내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처럼 국제연합군의 개입으로 한반도 내부의 민족해방전쟁·통일전쟁으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좌절되고 국제연합군의 개입으로 국제전화(化)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한국전쟁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왜 전쟁이 한국인들 간의 내전으로 그치지 않고 국제전이 되었는가?’이다. 스톡이 취하는 국제전 접근법은 이와 같은 그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²²⁾ 다음 장부터는 각각 세 가지 조건들 각각에 대한 스톡의 설명을 분석하도록 한다.

3. 한국전쟁 발발의 조건: 1945-1947년의 ‘가지 못한 길’

해방 3년사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국면이었다. 스톡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방 3년사의 시간대에 주목해야

20) 스톡은 1948-1949년 사이의 남한 내부의 충돌을 국제연합 총회에서 다루고, 1950년 한국전쟁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룬 미국의 결정이 전반적으로 정당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둘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WS, “The United Nation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Korean War,” Vaughan Lowe et al. (ed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War: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Practice in 1945* (Oxford: Oxford UP, 2014), 268.

21) WS, “The Korean War,” 277.

22) 스톡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 용어가 전쟁이 진행된 영토의 경계만을 알려줄 뿐, 전쟁의 본질적인 측면인 국제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톡은 한국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한국전쟁이 국제적 측면을 아예 배제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외교정책』, 116.

한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톡의 1차적인 관심사는 한반도 내부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같은 시기의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대립이었다. 이 점에서 그의 논의는 해방 3년사의 다양한 가능성에 주목하는 국내 학계의 접근법과는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다시금 제1차 세계대전 논쟁사가 유용한 선례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기원과 관련하여, 이 전쟁 자체가 예정된 것이었는지, 혹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쟁이 끝난 지 100년이 넘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하위문제로 세분화된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부상한 강대국 독일의 존재가 과연 세계대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의다. 이는 전쟁의 책임 국가를 먼저 상정해놓고 전쟁의 원인을 논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당시의 패권국 영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일레로 폴 슈뢰더(Paul W. Schroeder)의 연구는 영국이 당대 국제질서를 제어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부상에 대한 유럽정책을 입안하지 않았기에 현상변경 국가 독일의 ‘오판’을 불러온 진범이라는 주장을 펼친다.²³⁾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연구도 이와 같은 문제군 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도전국로서 소련, 특히 스탈린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수정주의자들은 패권국 미국의 역할에 강조점을 둔 뒤 극렬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스톡의 연구는 기존의 틀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면모를 지닌 제3의 길을 택한다.

우선 냉전기 전통주의자들이 스탈린의 팽창 야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스톡은 한 개인에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았다. 스톡은 순간적 결정이 낳게 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으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주목하고자 했다. 스톡은 전통주의자처럼 스탈린을 초치일관 현상타파 의지를 지닌 초역사적 개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스톡의 스탈린은 자신

23) 폴 슈뢰더의 국제정치사와 관련된 상세한 연구로는 안두환, 「세력균형 체제에서 국제협조체제로: 폴 슈뢰더의 근대 유럽외교사 연구」, 『세계정치』 20 (2014): 193-282.

이 놓인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의식하면서,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들을 내리는 ‘정치적 개인’에 가깝다. 정치적 개인은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의 구속을 받는 존재다. 스탈린 역시 시간에 따라 매번 판단을 달리하는 개인에 불과했으며, 정보의 제약에 따른 실수와 이에 대한 사후정당화도 서슴지 않았다. 즉, 스투은 스탈린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회람하더라도, 스탈린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탈린의 현실’이지 현실 그 자체는 아니었다. 역사학자답게 그는 문서로 나타나는 내러티브를 추출하고, 역으로 그와 같은 내러티브를 도출한 현실적 제약과 조건을 추적하고자 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탈린이 미국을 한국전쟁의 수령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고트발트 서한」(1950년 8월 27일자)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스투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한다.²⁴⁾ 설령 스탈린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진정으로 의도해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의 불참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언제나 스탈린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서한에 따르면,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통해 아시아라는 수령에 빠지길 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스탈린의 의도와 달리, 한국전쟁에 전격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서유럽 지역에서 대 소련 포위망을 공고히 했다. 스투은 이 서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스탈린의 안전보장이사회 불참 계획이 아니라, 그의 당대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뿐이라 일축했다. 설령 이 문서에 드러난 것이 스탈린의 의도라 하더라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도

24)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클레멘트 고트발트에게 보낸 「고트발트 서한」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고트발트 서한」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로는 이세기, 『6·25 전쟁과 중국: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전략』(파주: 나남, 2015). ; 이 서한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로는 기광서,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 유엔 안보리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상호인식과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211-13.

와 그로 인해 나타난 현실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했다.²⁵⁾ 스투크이 보기에, 스탈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장적 야욕을 동력삼아 한국전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깊은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상황에 끌려들어가기도 했다. 「고트발트 서한」에 나타난 스탈린의 정당화 언설(미국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공산진영 국가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레토릭에 가까웠다.²⁶⁾

이처럼, 스투크는 전체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한국전쟁에 접근했다. 스투크은 이와 같은 분석방식은 스탈린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투크의 주 분석대상인 미국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 태동한 것이다. 스투크 연구의 백미는 냉전 동아시아의 여러 분기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함으로써, 과연 당대에 다른 선택지가 가능했는지를 매우 심도 있게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투크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국면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검토하면서, 그 때마다 가능했던 현실적인 가능성과 실제 정책의 괴리를 대비시킨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선택들이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는 냉전이 고착화되지 않았던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이다. 이 당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현실적 대안들이 있었을까?

가장 먼저 상상 가능한 대안은 커밍스의 주장처럼 미군의 철군과 더불어 남한 내 사회혁명이 발발하여, 38선 이남의 정권이 붕괴하고, 38선이 철폐되는 형태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었다. 스투크은 커밍스의 시나리오

25) 이처럼 스투크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전쟁 의지나 공산 진영 내부의 합의를 증시하는 기존 학계의 연구방식과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김동길 등 사회주의권 자료의 해석에 집중하는 연구가 전쟁의 개전에 대한 자료적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스투크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스탈린의 정치적 측면에 더욱 주목했다. 스투크과 대비되는 김동길의 주장에 대해서는 Donggil Kim and William Stueck, "Did Stalin Lure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NKIDP) E-Dossier 1* (2008), 2-3.

26) Donggil Kim and William Stueck, 같은 글, 3-4.

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커밍스의 시나리오에서 사회혁명의 주력이 되어야 할 남한의 좌익들은 당시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긴 했지만, 혁명으로까지 이어질만한 대중적 기반은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남한이 이미 혁명적 상황이었다면, 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광범위한 게릴라 전쟁이 한국전쟁의 진행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쟁 중이나 전쟁 이후 남한의 반미감정이 제한적이었는지를 되묻는다.²⁷⁾ 물론 이와 같은 스톡의 주장에 대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남한 내부에서 진행된 여러 사회운동들을 반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스톡은 미군정과 사회세력 간의 갈등에서 큰 희생이 발생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운동 세력은 미군정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혁명에 의한 통일 정권의 수립은 불가능했다는 것이 스톡의 판단이었다.

이어 미군정에 대한 스톡의 평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커밍스가 미군정을 한반도의 혁명적 분위기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보았다면, 스톡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 미군이 ‘해방군’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으며, 미소 공동위원회나 국제연합이 주재하는 총선거를 통해 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맥락에서 좌익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⁸⁾ 흥미롭게도, 스톡은 1945년 9월의 시점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승인했다면, 남북한을 포괄하는 단일정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인정하기도 했다.²⁹⁾ 따라서 문제는 미군정 자체의 조직적인 반혁명성이 아니라, 이 ‘최고의 기회’를 집행할 수 있는

27) WS,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Conflict Studies* 22-1 (2002): 17-27.

28) WS, “In Search of Essences,” 150.

29) 반면 스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게 보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내부 분열이 심각한데다가, 이렇다 할 군사적 수단도 보유하지 못했으며, 본국의 한국인보다도 별다른 조직적 접촉을 유지하지 못했다. 스톡, “한국의 분단, 1945-1948: 미국의 책임에 대한 평가,” 이인호 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09), 41.

정치력을 지닌 인물의 부재였다. 스톡은 하지(John Hodge) 장군이 아니라 중국 전선에서 활약했던 조셉 스틸웰(Joseph Stilwell)이 한국에 먼저 파견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틸웰은 하지처럼 조선인민공화국을 배척하고 한국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⁰⁾

또 다른 대안은 한반도 신탁통치나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한반도가 협상을 거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방안이었다. 이는 단순히 구상만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군정의 중간과 강화 정책을 통해 일정하게 현실화된 바 있었다.³¹⁾ 스톡은 이와 같은 방안들이 애초부터 실패가 확정적인 불완전한 구상이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일부 한국인들이 미국의 구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점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스톡이 문제시하는 것은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 내 우파다. 미국의 구상에 호의적이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오스트리아의 우파들과 달리, 남한 내 우파들은 신탁통치안을 정치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고, 분단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했던 것이다.³²⁾ 이승만은 소련이나 공산주의자와 그 어떤 타협을 할 의사가 없는 인물이었다.³³⁾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국내적으로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톡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이 점에서 스톡은

30)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55-56. ; 스톡은 리처드 로빈슨의 『미국의 배반』(*Betrayal of a Nation*)을 인용하면서, 건준 주도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이 실책을 언급하고 있다. 스톡, “한국의 분단,” 46.

31) 이에 대해서는 정용욱의 연구가 자세하다.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과 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특히 제3부를 보라.

32) WS,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A Compa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4-1 (1995): 1-27.

33)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56.

뉴라이트 학계의 이승만 재평가와는 논의의 방향을 달리한다. 이승만 정권은 ‘북진’을 강경하게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위기감을 높였다. 또 이승만의 과격한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전쟁 직전 남한이 생산한 정세 보고서의 신뢰도를 낮추었다.³⁴⁾ 스톡은 남한에서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이 김일성의 전쟁 개시 판단을 돕고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저어하게 된 유의미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대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이승만 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했던 장개석 정권을 연결시켜 사고했으며, 이에 따라 전격적인 대남 지원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승만은 내부적 위기를 외부적 허장성세인 북진 통일론으로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적극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다.³⁵⁾

물론 스톡은 일부 수정주의자들이 이승만 정권을 남베트남의 응고딘디엠에 유비해 지나치게 폄하하는 태도에는 반대했다. 남베트남의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더라도 이승만 정권은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으며, 미국 역시 국민당 정권의 실패를 보면서 이승만 정권을 내부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줄곧 노력했다. 스톡은 이승만 정권이 위기를 겪은 것은 맞지만, 이는 1949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고 파악했다.³⁶⁾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방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이승만 정권을 도외줄 명분의 공간을 스스로 축소시켰다는 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스톡은 이승만의 공세적 대북정책과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한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이 의도된 ‘유도’는 아니

34) W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Failure of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4-2 (2010), 11.

35)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88.

36) 응고딘디엠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스톡의 비교로는 WS, “The Korean War at Sixty,” *The American Legion* 168-6 (2010), 30.

지만, 적어도 공산 측의 전쟁 결단에는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앞서 언급한대로 스탈린이 주어진 제약조건에 반응해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개인이었다면, 이승만 정부의 자승자박은 공산 측의 확장욕구를 추동하는 좋은 인센티브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톡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왜 소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이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적으로 국제연합군을 통해 개입했는가였다. 이 대목에서 스톡은 미국의 냉전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당대 수정주의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본격적으로 태동되었다.

4. 한국전쟁 발발의 조건: 1948-1950의 ‘미국의 책임’

1970년대는 미국 학계에서 한국전쟁 연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성과를 생산해내던 시기였다.³⁷⁾ 이는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베트남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싼 미국 내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발생한 파급효과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당대의 베트남전쟁의 이미지에 비추어 민족해방전쟁의 일환이었던 한국전쟁 역시 미국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격화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수정주의자들의 등장이었다.

당시 브라운대학교 박사과정이었던 스톡은 대표적인 수정주의자로 명성을 얻은 콜코 부부의 저서에 대한 상세한 비판 논문을 게재해, 학문적 신성(新星)으로 급부상한다.³⁸⁾ 수정주의의 포문을 연 콜코 부부의 저작은

37) 당대 미국 학계의 한국전쟁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발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아래의 저작을 참고하라. Francis Hellner, (ed.), *The Korean War: A 25-Year Perspective* (Lawrence: Regents Press of Kansas, 1977). 특히 리처드 레오폴드(Richard Leopold)의 당대 연구사 정리가 참고된다. 같은 책, 209-24.

38)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Row, 1972). 콜코 부부의 주장에 대한 스톡의 비판으로는 WS, “Cold War Revisionism and the Origins of the

트루먼-아이젠하워 행정기의 미국 외교정책을 평가하면서, 냉전의 책임은 세계자본주의의 팽창을 꺾한 미국에 있으며, 소련은 이와 같은 미국의 팽창에 반응적으로 대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콜코 부부의 눈에 한국전쟁은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훌륭한 확증 사례였다. 먼저, 콜코 부부는 한국전쟁의 개전에 대한 스탈린 주도설을 전면 부인했다. 스탈린은 한국전쟁을 주도하지 못했고, 한국전쟁의 개전날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소련에게 그야말로 ‘경악’이었다.³⁹⁾ 콜코 부부가 보기에, 한국전쟁의 발발은 소련의 후원에 의한 것이 아닌 북한-남한 간의 군비 경쟁,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의 북진을 두려워한 북한의 ‘방어적 선제공격’이었다.⁴⁰⁾

이와 같은 콜코 부부의 주장에 대해 스톡은 1950년 남한의 상황(남한 군대의 다수가 38선이 아닌 이남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이승만 정권이 과연 선제적 북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는지를 되물었다. 콜코 부부가 수세적 대응이라고 파악한 1950년 초엽 북한군의 급속한 증강은 스톡이 보기에 방어전의 준비가 아닌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공세’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소련의 무기 지원, 중국 내전의 종식 후 북한으로 들어온 조선의용대 병력이 존재했다.⁴¹⁾

다음으로 콜코 부부는 한국전쟁이 대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맥아더의 작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아더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그 기회에 미국의 유럽 우선 정책을 아시아 우선 정책으로 바꾸

Korean Conflict: The Kolko Thesis,” *Pacific Historical Review* 42-4 (1973): 537-60.

39)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585-87.

40) Joyce and Gabriel Kolko, 같은 글, 572-573. 콜코 부부는 남한군과 북한군의 전력, 그리고 1950년 초엽의 북한군의 급속한 증강의 증거로서 로이 애플먼(Roy Appleman)의 미군 공식전사인 『정책과 지도』(1961)를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41) 스톡은 북한에 대한 소련의 광범위한 개입의 증거로서 “Documentary Evid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MacArthur Archives)와 미 국무부가 작성한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U.S. Department of State, 1961)을 활용한다.

어, 중국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한 후, 세계적 영웅이 될 기회를 노리던 야심가였다. 이에 이승만이 자신의 국내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맥아더의 구상에 편승함으로써, 맥아더-이승만의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콜코 부부의 주장의 골간이었다. 이와 같은 콜코 부부의 주장은 이시도르 스톤(I. F. Stone)의 『한국전쟁 비사』(1952)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스톡은 소련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콜코 부부가 간과하고 있지만, 스탈린의 승인과 소련의 무기 지원은 한국전쟁의 발발의 필요조건이었다.⁴²⁾ 소련의 지원 이전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거의 ‘균형’에 가까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가능케 정도로 유의미하게 균형을 깨려면 소련 정도의 강대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스톡은 또 콜코 부부의 주장과 달리 맥아더로 대표되는 군부는 오히려 한국의 군사적 가치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은 1949년 6월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등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그리 높게 보지 않았다. 따라서 스톡은 맥아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는 한국전쟁 발발 전이 아니라, 38선 북진 논쟁 때라고 주장해 맥아더와 한국전쟁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역전시킨다.⁴³⁾ 스톡이 보기에, 콜코 부부의 주장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우연적 상황에서 제기된 ‘롤백’을 초역사적으로 적용한 결과주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톡은 한국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묻고 있는 콜코 부부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스톡은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경계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책임이 일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지만 이는 콜코 부부

42) 이와 유사한 주장은 스톡, 「소련과 한국전쟁의 기원」, 김철범 외, 『한국과 냉전』(서울: 평민사, 1991), 195.

43) 38선 북진에서 맥아더의 역할에 대한 스톡의 평가로는 스톡, 「압록강까지의 진군」, 브루스 커밍스 외, 박의경 옮김, 『한국전쟁과 한미관계』(서울: 청사, 1987), 241.

의 주장처럼 미국 자본주의로부터 추동된 미국의 전쟁의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미국이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작위 책임론’에서 미국의 가장 큰 패착은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한국에 대해 확실한 안보 공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무부-국방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대립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공산 측에게 세력을 확장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⁴⁴⁾ 그렇다고 미국은 이승만 정권의 자체 방어력을 증진하는 데 성공했던 것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의 총합이 결과적으로 ‘억지’의 실패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스톡의 판단이다.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 방어가 가장 쉬웠던 1949년 철군을 했다가, 한국 방어가 가장 어려웠던 1950년 한국전쟁에 한국을 지킨다는 크나큰 실책을 범했다.⁴⁵⁾

커밍스가 이 실패의 의미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미국의 한국전쟁 유도 가능성을 논했다면, 스톡은 트루먼 행정부에서 왜 이와 같은 ‘정책 실패’가 나타났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스톡은 한국전쟁 발발 전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 조치만 취했다면, 스탈린의 한국전쟁 개전 결심을 충분히 좌절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주제를 단독으로 다룬 글에서 스톡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⁴⁶⁾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가치에 대한 군부의 협소한 인식이었다. 1947년 즈음 합동참모부(JCS)로 대표되는 군부는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낮다고 보았다. 이는 냉전 세계전략을 고민하던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한국이 아니라 그리스·이탈리아·이란·서유럽 등에 있었기 때문에

44) 미국 내에서 논의된 한국의 전략적 가치 논쟁에 대해서는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국제정치논총』 43-1 (2003): 163-183.

45) Lee, Chae-jin and Donald Oberdorfer, Byoung-chul Koh and William Stueck, “Imagining a Different Korea: What If,” 211.

46) W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18.

나온 판단이다. 군부는 군사적 효용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방위는 이미 오키나와와 일본에 배치된 공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국무부의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희석된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자력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군이 철군하면 한반도를 공산 측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군부의 주장에 대한 임시방편으로서, 국무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방부와 달리 국무부가 한국 문제를 중시했던 것은 한반도의 ‘상징적 가치’ 때문이었다. 이는 국무부가 주시하고 있던 당대 중국의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내전에서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전술적 패는 그리 많지 않았다. 반면, 중국 바로 옆 38선 이남의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장악력을 확보한 상태였다. 중국 내전의 결과로, 중국에서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었고, 그에 비례해 한반도 이남의 전략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중요했다.⁴⁷⁾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스톡이 가장 염원했던 결말은 『웨드마이어 보고서』에서 이미 표명된 바 있었다.⁴⁸⁾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를 방문했던 웨드마이어 장군은 1947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 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상황을 조사했으며, 그 최종 보고서를 9월 9일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드러난 웨드마이어의 입장은 주한미군의 조기철군에 대한 단호한 반대였다. 웨드마이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미국의 ‘도덕적

47) 스톡은 바로 이 주제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다. 박사학위 논문은 WS,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tics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81)로 공간된다.

48) 웨드마이어 사절단에 대한 스톡의 분석으로는 WS, *The Wedemeyer Mission: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Athens: U of Georgia P, 1984).

위신'이 하락할 것이라 우려했다.

스톡은 웨드마이어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가 이름처럼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이미 냉전적 맥락에서 미국의 지구적 책임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며,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해 다루기를 원했다고 보았다. 공개된 국제연합에서 정식 절차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무부는 국제적인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⁴⁹⁾ 스톡은 이를 매우 절묘한 정치적 수라고 평가했다. 예상대로 소련이 한반도 문제의 국제연합 이관을 거부하자, 남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 한반도 전역에 선거가 개시되었다면, 공산주의자들의 선거 승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국제연합을 활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소한 38선 이남이라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⁵⁰⁾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 국무부는 이승만 정부의 생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무부는 철군안에 몇 차례 제동을 걸면서 1949년 6월까지 미군의 철군을 미루는 데 성공한다. 주한미군의 철수 이후 남았던 500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은 국무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는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 전략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서유럽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NAT)를 통해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방위를 공약했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식적 공약을 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도 이를 보증하지 않았다. 이는 스톡이 꼽는 미국의 또 다른 실책이었다.⁵¹⁾ 실제로 이승만 취임식에 맥아더가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미국의 최고 지도부 중 그 누구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49) W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5.

50) 이와 같은 스톡의 주장과 유사한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는 자료로는 미국 민주당 선거지도부가 발간한 『한국에 관한 진실』(*The Truth about Korea: 1952*)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소극적인 한국 지원의 책임을 공화당에 묻고 있다.

51) WS,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6.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⁵²⁾ 또 미국은 1949년 이승만과 필리핀의 퀴리노가 추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인 ‘태평양동맹(태평양연맹)안’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한국의 군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태평양동맹의 결성으로 불필요하게 중국 공산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중국 내전의 추이를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대한정책이 이처럼 소극적이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미 의회의 긴축 정책이 자리했다. 트루먼 자신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시했으나, 정작 국방부 장관이었던 루이스 존슨은 국방부의 방만한 예산을 축소·재편하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스톡은 1949년과 1950년 사이 존슨 국방부 장관과 트루먼의 타협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유지된 채 재정만 축소되었고 이는 해외 주둔 미군의 축소로 이어진 것이 그 증거다. 미국 지도부는 미군 핵무기와 우세한 공군력을 통해 소련에 대한 억제를 하고자 했고, 스톡에 따르면 한국 방위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대책이 입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북한의 남한 공격이 시도 되더라도, 오키나와와 일본에 배치된 미군 공군력을 통해 충분히 격퇴가 가능하다고 미국 지도부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⁵³⁾ 또 미국 내부에서 ‘중국 상실’ 논쟁과 더불어 대만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한국의 방어가 아닌 대만 방어에 쏠린 상태였다. 대만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 구조였다.⁵⁴⁾

그러나 미국이 한국전쟁에 즉각 개입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인 가치만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스톡은 이를 한국의 ‘상징적 가치’라 보았다. 즉, 미국은 콜코 부부의 주장처럼 미국 자본주의

52) WS, 같은 글, 9.

53) WS, 같은 글, 8.

54) 이는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여론의 문제, 행정부-입법부의 갈등, 국무부-국방부의 갈등,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미국의 양가적인 감정 때문이었다. WS, “The Korean War,” 275.

팽창의 전진을 위한 기지로서 한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양 진영의 최전선으로서의 상징적 가치가 있었고 이러한 흡인력은 미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한반도로부터의 완전철수는 다른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책임의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낼 것이 분명했다. 비록 1949년에 미군이 계획에 입각해서 철군했어도, 이는 남한에 대한 공약의 완전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한반도는 이미 ‘미국의 위신’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가능하고 있었다. 스톡이 보기에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이 즉각 개입한 것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한국인식과 정책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5. 나오는 말: 제한전으로서의 한국전쟁과 냉전적 의미

지금까지 윌리엄 스톡의 한국전쟁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에서 강조된 바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기본적으로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은 국제전 조건 하에서 결정됐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전 접근법이 유용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스톡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나타난 여러 오판들을 지적했다. 이는 김일성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에서 한국전쟁 개전을 결심하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렇다면 스톡에게 한국전쟁은 여러 행위자들이 오판한 불운한 결과물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만 그치는 것일까?

스톡의 진가는 연속되는 오판으로부터 냉전기 미국이 일종의 학습효과를 얻었다는 점을 착안한 데 있다. 한반도 분단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은 그야말로 오판의 연속이었지만, 미국-한국이라는 시좌를 벗어나서 본다면, 미국에게 한국전쟁은 중요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스톡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데이비드 리스(David Rees)의 『한국전쟁』을 인용

하면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따진다.⁵⁵⁾ 리스는 한국전쟁이 미국에게 군사력에 대한 오만과 과신을 반성하고 절제력을 길러주었다는 의미에서 클라우제비츠적 ‘제한전쟁’이라 보았다. 리스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십자군 전쟁’이 되지 못한 전쟁이었다.⁵⁶⁾ 조지 케넌을 비롯한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문제는 전쟁에서 현실적 이익보다는 도덕적 신념을 내세우는 이상주의적 경향에 있었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라는 군사적 승리에 도취되어 38선을 돌파하는 군사적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중공군의 참전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일종의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냉전의 전개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제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내의 전쟁으로 제한되었으며,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위는 결과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리스에 따르면, 서유럽 방위의 성공과 서유럽의 정치 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가 경험한 가장 큰 ‘정치적 성취’였다.⁵⁷⁾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실패를 경험하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 급속하게 팽창한 군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를 확립했다. 트루먼은 맥아더로 대표되는 군부 강경파를 제어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핵 시대의 첫 전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와 같은 확산 반대의 과정에서는 영연방과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이 활약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로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나, 한국전쟁의 경로와 그 결과를 바꾸어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

55) 데이비드 리스에 대한 스톡의 분석은 WS, “The Korean War As History: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In Retrospect,” Conference on the Power of Free Inquiry and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1998.

56)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1964), xi.

57) David Rees, *Korea*, 446.

되었다.

스톡은 한국전쟁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서 기독교 현실주의자 라인홀드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고언을 인용한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외중에, 니부어는 『미국사의 아이러니』(1952)라는 책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니부어는 인간사의 비극은 선(善)을 위해 의식적으로 악(惡)을 추구할 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니부어가 사용하는 ‘아이러니’는 현실의 복잡성에 착안한 개념이다. 아이러니는 상반된 요소들이 공존하며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전체 상황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는 상황을 지칭한다.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고, 바보스러움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바보스러움이 있다. 니부어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에, 인간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⁵⁸⁾

니부어는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글을 썼지만, 스톡은 니부어의 관점이 냉전기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⁵⁹⁾ 인간은 결코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국가의 대외정책결정자들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이 선함과 옳음을 언제나 성취할 수는 없다. 국가정책의 입안자들은 때로는 악의 가면을 쓴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적어도 선하지만 국가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었다.

스톡이 보기에 한국전쟁의 개입은 ‘악의 모습을 한 선’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소련에게—그 이전에 보냈어야 했던—확고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또한 일단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그 전까지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을 우려하던 미국 내의 분위기도 전격적으로 변할 수 있었다. 스톡은

58)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Chicago: U of Chicago P, 2008), 166-67.

59) WS, “In Search of Essences,” 155-56.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스탈린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도했으리라 보았다.⁶⁰⁾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정책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진영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사례와 같은 국제연합군의 신속한 출병을 주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소련의 침공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면, 유럽 전선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했다.⁶¹⁾

하지만 현실은 다행히도 이와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효과적으로 소련을 봉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세계대전으로 전화할 수 있던 유럽 전쟁은 막았다. 스톡이 즐겨 사용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은 이와 같은 그의 관점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표현이다. 스톡이 볼 때, 커밍스를 위시한 수정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선택이 갖는 양면적 성격—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때로는 오판으로 점철되기도 했고, 한국전쟁이라는 큰 희생을 치렀다. 그러나 이는 스톡에게 한반도의 절반을 김일성의 포악한 지배로부터 구해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결정으로 비추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극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윌리엄 스톡은 바로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기 위해 당대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모두에게 책임을 묻은,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냉철한 역사가였다.

60)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스탈린이 미국과 서구의 방어력을 테스트하려 했던 것으로 인식했다. 한국전쟁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김철민, 『한국전쟁과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서울: 아카넷, 2008).

61) WS, “In Search of Essences,” 158.

Works Cited

1차 자료

[단독연구]

- 윌리엄 스투크. 「소련과 한국전쟁의 기원」. 김철범 역음. 『한국과 냉전』. 서울: 평민사, 1991.
- _____.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서울: 푸른역사, 2001.
- _____. 서은경 옮김.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 2005
- _____. 「한국의 분단 1945-1948: 미국의 책임에 대한 평가」. 이인호 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서울: 기파랑, 2009.
- Stueck, William. *Domestic Politics, Far Eastern Strategy, and the Early Months of the Korean War*. Diss. Queens College, 1971.
- _____. “Cold War Revisionism and the Origin of the Korean Conflict: the Kolko Thesis.” *Pacific Historical Review* 42-4 (1973): 537-60.
- _____. “Progressivism and the Negro: White Liberals and the Early NAACP.” *Historian* 38-1 (1975): 58-76.
- _____. “The Soviet Un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orld Politics* 28-4 (1976): 622-35.
- _____.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Diss. Brown University, 1977.
- _____.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81.
- _____. “March to the Yalu.” Ed. Cumings, Bruce.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 of Washington P, 1983(브루스 커밍스 외, 박의경 옮김. 『한국전쟁과 한미관계』(서울: 청사, 1987)에 수록).
- _____. *The Wedemeyer Mission: Americ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Athens: U of Georgia P, 1984.
- _____. “The Limits of Influence: British Policy and American Expansion of the War in Korea.” *Pacific Historical Review* 55-1 (1986): 65-95.
- _____. “The Korean War as International History.” *Diplomatic History*

- 10-4 (1986): 291-309.
- _____. “Western Defensive (and Offensive) Strategies in the Cold War: A Multiarchival, Multilingual Approach.” *Diplomatic History* 14-4 (1990): 623-30.
- _____. “The Korean War, NATO, and Rearmament.” Ed. Williams, William J. *A Revolutionary War: Kore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World*. Chicago: Imprint, 1993.
- _____.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A Comparative Approach.”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4-1 (1995): 1-27.
- _____.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P, 1995.
- _____. “In Search of Essences: The Labelling the Korean War.” 『영미 연구』 2 (1996): 141-64(Philip West and Suh Ji-moon. (eds.),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M.E. Sharpe, 2001에 재수록).
- _____. “The Korean War As History: David Rees’ Korea: The Limited War In Retrospect.” Conference on the Power of Free Inquiry and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1998.
- _____.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Role, 1980 and 1987.”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2-1 (1998): 1-26.
- _____. “Syngman Rhee, the Truman Doctrine and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유영익 엮음,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윌리엄 스톡. 서은경 옮김.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울: 나남, 2005에 수록).
- _____. “The Korean War and the Struggle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Ed. Rosenbaum Arthur L. and Chae-Jin Lee. *The Cold War: Reassessments*. Claremont: Keck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2000.
- _____.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P, 2002.
- _____. “Revisionism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Conflict Studies*. 22-1 (2002): 17-27.
- _____. “The End of the Korean War: Some Reflections on Contingency

- and Structure.” *Historically Speaking* 4-5 (2003): 10-12.
- _____. “Reassessing U.S. Strategy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Orbis* 53-4 (2009): 571-90.
- _____.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Failure of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4-2 (2010): 1-18.
- _____. “The Korean War.” Eds. Leffler, Melvyn P. and Odd Arne Westa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The Korean War at Sixty.” *The American Legion* 168-6 (2010): 27-40.
- _____. “Power and Culture: the Origins and Durability of the Korean-American Alliance.” Ed. Yeager M. and C. Carter. *Pacts and Alliances in History: Diplomatic Strategy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London: I.B. Tauris, 2010.
- _____. “Ambivalent Occupation: U.S. Armed Forces in Korea, 1953 to the Present.” Ed. Wampler R. A. *Trilateralism and Beyond: Great Power Politics and the Korean Security Dilemma during and after the Cold War*. Kent: Kent State UP, 2012.
- _____. “The United Nations,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Korean War.” Eds. Lowe, Vaughan et al.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War: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Practice in 1945*. Oxford: Oxford UP, 2014.

[공동연구]

- Casey, Steven and William Stueck. “Reflections on the MacArthur Controversy at Sixty.” *Historically Speaking* 12-2 (2011): 37-40.
- Kim, Donggil and William Stueck. “Did Stalin Lure the United States into the Korean War?” *North Korea International Documentation Project (NKIDP) E-Dossier* 1 (2008): 1-6.
- Leary, Willam M. and William Stueck. “The Chennault Plan To Save China: U.S. Containment in Asia and the Origins of the CIA’s Aerial Empire, 1949-1950.” *Diplomatic History* 8-4 (1984): 349-64.

- Lee, Chae-jin and Donald Oberdorfer, Byoung-chul Koh and William Stueck, "Imagining a Different Korea: What If." Eds. West, Philip and Suh Ji-moon.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New York: M.E. Sharpe, 2001.
- Stueck, William and Boram Yi. "An Alliance Forged in Blood: The American Occupation of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33-2 (2010): 177-209.

[편저]

- Stueck, William (ed.) *The Korean War in World History*. Lexington: UP of Kentucky, 2004.
- _____ (ed.) *Eye on Korea: An Insider Account of Korean-American Relations*. College Station: Texas A&M UP, 2003.

2차 자료

- 기광서,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입장: 유엔 안보리 불출석과 ‘드러나지 않은 개입」. 『역사 속의 한국과 러시아: 상호인식과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 김남균. 「미국 역사가들과 한국전쟁: 해석의 변증법」. 『미국사연구』 12 (2000): 137-159.
- _____. 「한국전쟁을 보는 새로운 시각: 국제전으로서의 한국전쟁」. 연세대 현대 한국학연구소 엮음. 『해외한국학평론』 2권. 서울: 일조각, 2001.
- _____. 「6·25전쟁기 대통령 트루먼의 전쟁지도: 제3차 세계대전의 방지」. 『군사』 87 (2013): 1-24.
- 김명섭.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 『국제정치논총』 43-1 (2003): 115-133.
- 김용직. 「한국전쟁과 사회변동: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혁명-내전 가설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2-1 (1998): 35-57.
-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325-64.
- 김철민. 『한국전쟁과 동유럽: 유고슬라비아는 왜 남침설을 지지했는가?』. 서울: 아카넷, 2008.

-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 과정, 휴전, 영향(제4수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2010.
-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서울: 후마니타스, 2015.
- 남시욱 『6·25전쟁과 미국: 트루먼·에치슨·맥아더의 역할』. 서울: 청미디어, 2015.
- 로빈슨, 리처드 정미옥 옮김 『미국의 배반: 미군정과 남조선』. 서울: 과학과사상, 1988.
- 매트레이, 제임스 구대열 옮김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박명림 『역사, 지식, 사회: 한국전쟁 이해와 한국사회』. 파주: 나남, 2011.
- 박인숙 「미국 외교사와 ‘국제사’ 문제」. 『미국사연구』 11 (2000): 191-213.
- _____. 「최근 20여 년간의 미국 외교사 서술의 동향」. 『대구사학』 72 (2003): 391-437.
- 선즈화, 김동길 옮김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서울: 선인, 2014.
- 슈나벨, 제임스 육군본부 옮김 『정책과 지도』. 서울: 육군본부, 1971.
- 시몬스, 로버트 기광서 옮김 『한국내전: 전쟁의 내전적 성격과 북방동맹』. 서울: 열사람, 1988.
- 안두환 「세력균형 체제에서 국제협조체제로: 폴 슈뢰더의 근대 유럽외교사 연구」. 『세계정치』 20 (2014): 193-282.
- 유영익 엮음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삼성 「한국전쟁과 내전: 세 가지 내전 개념의 구분」. 『한국정치학회보』 47-5 (2013): 297-319.
- 이세기 『6·25 전쟁과 중국: 스탈린의 마오쩌둥 제압전략』. 파주: 나남, 2015.
- 이완범 『William Whitney Stueck, Jr.,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서울: 푸른역사, 2001)』.
- _____. 『미국사연구』 14 (2001): 193-202.
- _____.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 서울: 백산서당, 2000.
- _____. 「6·25전쟁의 성격과 개전 책임문제」. 『북한학보』 34-1 (2009): 41-76.
- _____.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 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이철순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 『국제정치논총』 43-1

- (2003): 163-83.
- 전재성.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파주: 한길사, 2012.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8.
-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_____. 「1947년 웨드마이어 특사의 방한, 단정안 현실화의 회기」. 『역사비평』 112 (2015): 70-88.
- 조순승. 『한국분단사』. 서울: 형성사, 1982.
- Bandow, Dou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War; Critical Foreign Policy Decisions by the Truman and Eisenhower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14-2 (2010): 71-99.
- Barnes, Robert. *The US, the UN and the Korean War*. London: I. B. Tauris, 2014.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rinceton: Princeton UP, 1981.
-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Princeton UP, 1990.
- _____.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Durham: Duke UP, 1999.
- Dobbs, Charles. *The Unwanted Symbol: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 1945-1950*. Kent: Kent State UP, 1981.
- Hellner, Francis. (ed.) *The Korean War: A 25-Year Perspective*. Lawrence: Regents P of Kansas, 1977.
- Heuser, Beatrice. *Western Containment Policies in the Cold War: the Yugoslav Case, 1948-53*. New York: Routledge, 1989.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P, 1976.
- Kolko,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Row, 1972.
- Rees, David. *Korea: The Limited War*. New York: St. Martin’s, 1964.

Spanier, John W.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Cambridge: Harvard UP, 1959.

Woods, Randall B. "The Substitute War." *Diplomatic History* 21-4 (1997):
637-43.

■ 논문 투고일자: 2016. 05. 31

■ 심사 완료일자: 2016. 06. 22

■ 게재 확정일자: 2016. 06. 23

Abstract

William Stueck and the Korean War

Chang Joon OK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reevaluate William Whitney Stueck's study, who is well known for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ography. Stueck's study which emphasizes the international aspect of Korean War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academia as an opposing view to that of Bruce Cumings. However,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whole picture of Stueck's study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 the existing frame of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This study focuses on Stueck's critical approach on the policy of United States toward Korea just before the outbreak of Korean War as his biggest academic contribution. Stueck reviewed the policy of United States toward Korea generally, and examined several conditions of the outbreak of Korean War. Through this work, he was able to newly discover the third issue group which would exceed Traditionalism and Revisionism.

Key Words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 한국전쟁(Korean War) 냉전(Cold War)
국제사(International History) 사학사(Historiography)